

연극으로 '제2의 인생' 찾았어요

종로노인 어르신연극동아리 '빨래터', 대학로서 열연

"아유 속상해. 이 경로당 전화요금 저부녀회에서 내드리고 있잖아. 이번 달 경로당 전화요금이 무려 279만 8359원이 나왔다 이 말 씀입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전화요금 200만원 넘게 나와?" "이거 우리가 쓴 거 아니야. 그거 분명히 똥가 잘못된 걸 거야."

부녀회장이 들어서며 단진 말 한마디가 어르신들이 모인 경로당을 떠들썩하게 한다. 경로당에 한 대 밖에 없는 유선전화 요금은 279만 원이라는 사실을 전한 것. 게다가 누군가 밤늦게 경로당에서 성인폰팅을 하느라 전화요금 많이 나왔다는 말을 들은 어르신들은 서로 눈치만 보여 출렁였다. 범인은 누구일까.

무더위가 한풀 꺾인 8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 종로노인종합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평균연령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여 대본 연습 중이다.

8월 28-29일 대학로 소극장 시절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선보일 '경로당 폰팅사건' 공연을 앞두고 열연을 펼치고 있다.

연극에 출연한 어르신 13명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어르신 연극 동아리 극단 '빨래터' 회원들.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어르신들

'경로당 폰팅사건' 공연

연극 거장 강영걸 지도

4월부터 발음·발성 맹연습

수익금 지역에 환원계획

은 이번 작품의 연출과 각색을 맡은 강영걸(69) 연출가에게 4월부터 발음, 자세교정, 발성 등 본격적인 기초 교육을 받은 뒤 2주전부터 매일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대본을 읽으며 대사를 맞춰왔다.

강영걸 연출가는 관객 20만 명을 동원한 '불 쏘 겨주세요'를 연출하며 1990년대 연극계에 돌풍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등 다수의 불교작품도 연출한 그는 삼성문예상, 백상예술대상, 서울연극제 희곡상 등을 휩쓸었다.



연극동아리 '빨래터' 어르신들은 오디션을 거쳐 연극 연출과 각색을 맡은 강영걸 연출가에게 발음, 자세교정, 발성 등 본격적인 기초 교육을 받아 무대에 오른다.

사단법인 소극장협회는 종로구와 함께 지난해부터 대학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학로소극장 축제 'D. FESTA!'를 열어 왔다. 협회 측은 이달 말 개최되는 축제에서 두 번째 연극을 선보이는 어르신 극단의 전문적 지도를 위해 강영걸 연출가에게 지도 및 연출을 부탁했다.

강 연출가는 "학예회 수준에 머무는 연극이 아니라 이분들이 살면서 제대로 된 연극을 맛보고 갈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 연출을 맡기로 했다"며 "완벽한 연기는 선보이지 못하더라도 주말도 반납하고 연

습하는 이분들의 진정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씨는 어르신들의 연기력을 고려해 배역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손수 극본을 각색했다.

연말의 초보배우들이 연극한다고 앞잡아보면 큰 오산이다. 연습하는 내내 어르신들은 자신의 역할에 몰입했다. 극중 어르신들의 과장된 연기와 농담에 웃음이 나다가도 노인의 애환이 담긴 독백 장면에서는 가슴이 찡해진다.

공연에서 폰팅 아르바이트를 하 할머니2 역을 익살스럽게 연기한

안영자(70·여) 어르신은 "평소 앞 전한다는 말을 듣는 편인데 연극을 하면서부터 많이 활발해지고 성격도 밝아진 것 같다"며 "지난해 남편과 사별해 큰 아픔을 겪었지만 연극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았다"고 말했다.

경로당 회장역을 맡은 이관(71·남) 어르신은 "젊을 때 연극·예술 쪽으로 관심이 많았지만 감히 예술이라는 것은 입 밖으로는 꺼내지도 못하던 시절이어서 꿈을 펼쳐본 적이 없다"며 "복지관에서 연극을 배우니 삶의 활력이 느껴지고 표현력, 의사전달력도 늘고 대본을 외우니까 암기력도 느는 것 같다. 제2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극단 빨래터를 담당하는 장경훈 사회복지사는 "다른 사람의 삶을 표현하는 연극을 통해 어르신들은 다양한 삶을 체험할 수 있다"며 "또 발성, 발음, 대본연습 등을 하기 때문에 표현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은 이번 공연에서 모인 수익금을 지역아동들에게 환원할 계획이다. (02)742-9500

글=이은은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마주협, 베트남 지역 봉사 성료

1000여 환자 진료 및 5개 학교 화장실 신축



베트남 지역 초등학교에 페인트칠을 하고 벽화를 그리는 마주협 봉사단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도제, 이하 마주협)는 '신짜오 베트남 앤 코리아' 해외 봉사단을 조직해 8월 11-17일 베트남에서 뜻깊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해 스리랑카 해외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의료봉사단, 대학생, 고등학생 등으로 이뤄진 봉사단 57명이 베트남 타이호아성의 농촌지역을 찾았다.

봉사단은 10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5개 학교에 학용품

지원했으며 4개의 화장실을 신축했다. 또한 학교에는 페인트칠을 하고 벽화를 그렸으며 시각장애 인시설을 방문해 교육기자재를 전달했다. 이밖에 봉사단은 흐영 틱사를 방문해 보시금과 후원 물품 등을 전달했다.

해외봉사단장 도제 스님은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지 20년이 되는 해라서 뜻깊은 봉사활동이 됐다. 의료지원과 화장실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봉사를 할 수 있어 매우 보람됐다"고 말했다.

이은은 기자

자양복지관, 사찰음식 행사 개최

지역주민들의 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찰음식 나눔의 장이 마련됐다.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은 8월 21일 사찰음식을 주제로 복지관에서 '식문화개선 캠페인 및 사찰음식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민들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시식 체험 및 미니 가요제 등이 열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은은 기자

가족상담 위한 비구니 스님 교육

조계종 복지재단, 9월 24~26일 국제선센터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총선)은 9월 24-26일 조계종 국제선센터 마하실 강의장에서 비구니 스님들에게 '불교적 가족상담 지도자 교육(초급과정)'을 실시한다. 스님들은 교육을 통해 신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가족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해결을 위한 가족상담기법과 사례를 배우게 된다.

올해 심리학과) 등 5명의 상담심리 전문 강사진이 △불교상담자의 상담자적 태도와 윤리 △한국적 가족상담의 이해와 주요 이슈 △불교상담 사례별 실습과 슈퍼비전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모집인원은 60명이며 참석 희망자는 조계종 복지재단 홈페이지(www.mahayana.or.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메일(woeks48@chol.com)로 접수하면 된다. (02)723-5101 이은은 기자

일본계 3세 마이클 혼다 나눔의 집 방문

2007년 미국의회 '위안부 결의안'을 발의했던 일본계 3세 마이클 혼다(민주당) 의원, 애니 팔레오마베가 연방 하원의원이 8월 20일 나눔의 집(원장 윤행)을 방문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위안부 소녀상"은 너무 작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치욕적"이라며 "한국 정부가 더 큰 추모상을 건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일본 정부가 사과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들이 무엇을 겪고 어떻게 견뎌왔는지 알리고 일본에도 상징이 될 수 있게 더 큰 추모상 건립이 필요하다"며 동석한 새누리당 이한성·노철래 의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청원할 것을 요청했다.

마이클 혼다 의원은 "할머니들은 강제동원됐기 때문에 위안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대신 성노예(Sexual Slavery)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혼다 의원은 2007년 '위안부 결



마이클혼다 의원(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과 애니팔레오마베가 의원(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나눔의 집을 방문해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로했다.

의안' 채택 당시를 회고하면서 "당시 일본 민주당 리더들은 찬성했다. 누가 우리의 친구인지 알아야 한다. 일본인이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격려하며 같이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일본 우호세력과의 연대를 주문했다.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85)는 "우리가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두 의원이 방문한)이 자리가 너무 행복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고(故) 김광석씨 불려 유명해진 '이등병의 편지' 작사·작곡가인 가수 김현성(54)씨가 위안부

소녀상을 소재로 한 노래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였다. 김씨는 8월 22일 '소녀상' '말뚝 사건' 후 소녀상에 관해 이야기하는 노래가 없음을 알게 됐다"며 "1000번을 넘어선 할머니들의 집회가 으레 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음악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작사, 작곡 취지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5일 서울 중화동 일본대사관 건너편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에 참가해 폭우 속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들려줬다. 이은은 기자

박해일,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

28일 서울노인복지센터서 위촉식 가저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 공식 홍보대사로 배우 박해일(사진)이 선정됐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청원)는 8월 28일 서울노인복지센터 강당에서 박해일을 초청해 위촉식을 가졌다.

박해일은 여러 이미지가 공존하는 얼굴과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눈빛, 배역에 혼연일체가 되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관객과 감독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고 있다. 2001년 <아이키키 브라더스>로 데뷔한 이래 <질투는 나의 힘> <국꽃향기> <살인의 추억> <괴물> <모던아이> 등 매번 전혀 다른 인물이 되어 관객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끌어들이었다. 또한, 2012년에는 화제작 <은교>에서 소녀의 순수한 관능을 흔들리는 위대한 시인 이적오 역을 맡아 30대 청년의 몸으로 70대 노년의 고독과 슬픔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는 "모든 세대가 우리 시대의 노인과 노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고된 시간을 통해 깊은 공감에 이르고자 하는 서울노인영화제의 주제 의식이 배우 박해일이 연기하는 이적오의 삶을 통해 완벽하게 구현됐다"며 "청년의 몸으로 노년의 영혼을 연기한 배우 박해일이 홍보대사로 참여하면서 2012년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의 행보에 큰 기대가 모아진다"고 밝혔다. 박해일은 역대 홍보대사 임현식(제4회), 김희라(제3회)에 이어 서울노인영화제에서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의 장을 펼칠 나날 예정이다.

제5회 서울노인영화제는 오는 10월 22-25일 종무로 대한극장에서 개최된다. (02)6911-9551 이은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략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2년 8월 중
- ◆개강일시 : 2012년 8월 17일(금요일) 개강. 매주(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원본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치아사리 봉안 사찰

봉 금강산 건봉사 가을 산신대재 행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발원합니다. 석가세존 진신 치아사리 봉안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에서는 모든 이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산신대재를 매년 지내왔습니다. 산신신앙은 자식과 재물을 기원하는 민간의 고유 신앙이며 산신대재는 불교에 수용된 한국 종교 특유의 기원제입니다. 득남득녀, 득강발원, 좋은인연, 시험합격, 사업번창 등 소원을 속히 성취시켜주시는 호법신장님이 바로 산신님입니다. 올 가을에도 변함없이 여러 불자님과 더불어 힘든 우리들의 삶을 금강산 산신님의 위신력으로 풀고 삶의 지혜를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산신대재를 전통의식으로 여법하게 봉행하고자 합니다. 두루 동참하시고 스님들의 독송이 온 산에 울려 퍼질 때 금강산과 하나 되어 건봉사 산신님의 크신 원력을 체험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 불기 2556년(2012년) 10월 6일 (토) (음 8.21) 오전 10시
장 소 : 금강산 건봉사 산신각
기도동참금 : 5만원 (당일 포함 7일간 축원)
계좌번호 : 농협 247-01-251767 예금주: 건봉사
접수문의 : 전화 033)682-8100-2 FAX 033)682-5994
차량문의 : 서울 _ 건봉사 중무소 033)682-8100 (VIP관광)
부산 _ 불광회 박길하 거사님 011-855-8741
충청·대전 _ 불자회 011-9415-8717
전남·광주 _ 정길태 011-604-2377 (에버그린 관광)
건봉사 서울포교당 벽운사 _ 02)979-0108

당일은 혼잡하니 미리 중무소로 전화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은 각 지역별로 접수, 출발하고 서울은 10월 6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033)682-8100-2